



8 인터뷰 | 흥익대 박새롬(광고홍보학 2009) 양

특별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학생에게 대학생들 듣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한복을 입고 유령을 일주한 흥익대 박새롬 양을 만났다. "민들레 홀씨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다 자신이 정착할 곳을 찾는 것이 대학생"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3 보도 | 핵심사업 긴급점검 - 자율운영예산제

대학본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대신 각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마련된 자율운영예산제 도입된지 4년이 지났지만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시작된 거창할 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을 점검하는 연재기획 그 첫 번째로 자율운영예산제를 진단한다.

제 1508호

2012년 3월 5일 월요일
http://media.khu.ac.kr

대학주보



등록금 2.5% 인하 '가합의'

등심위 최종 확정 남아, 신입생 등록금 환급방법은 미정

서범석 기자 klose@khu.ac.kr
대학본부와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가 2012학년도 등록금을 2.5% 인하하기로 가합의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지난달 13일 열린 제8차 등록금책임위원회(등책위)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6차 등책위에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 책정은 가합의로 최종안은 등심위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강 이후까지 결정이 미뤄진 이유는 총학과 대학본부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논의 초기 양 캠퍼스 총학은 등록금 10% 인하를 요구한 반면 대학본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행선

을 달리던 등책위 논의는 2012학년도 1학기 등록 시기인 2월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신입생에게는 지난달 6일 동결로 고지됐다. 이후 논의에서 등록금을 2.5% 인하하는 것으로 가합의해 재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됐다. 서울캠 김경만 부총장은 "학기 등록 일정과 국가장학금 학교별 책정 일정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5% 인하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 박지하(국어국문학 2008) 회장은 "국가장학금 유형 II 학교별 책정 기간을 고려해 장학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합의했다"며 "추후 논의에서 등록금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 가합의의 주요인이

었던 국가장학금 유형 II의 경우 우리학교는 총 74억 487만 원을 배정받았다. 이 중에서 등록금 차감 노력을 인정받아 지급받은 금액은 65억 4,600만 원으로 배정금액 중 88.4%만을 수령했다. 재정예산원 관계자는 "현재 배정된 국가장학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등록금이 확정된 이후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캠 총학은 대학본부가 2.5% 인하안을 제시하자 등록금 인하로 인한 학생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국제캠 총학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학자사무국 황정순(식품공학 2009) 국장은 "최근 한양대와 광운대가 등록금을 인하한 이후 수업일수를 줄였었다"며 "가합의'지만 등록금이 인하된

다면 타 대학처럼 수업일수나 교내 장학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국제캠 오택열 부총장은 "타 대학처럼 등록금을 인하하고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교원을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등록금이 인하된다고 교내 장학금이 줄어드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등책위에서 등록금을 가합의한 이후 등심위는 아직 추후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동결로 고지된 신입생의 환급방법 또한 미정인 상태다. 국제캠 부총장행정실 정민교 계장은 "지난해와 같이 총학과 논의해 환급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6면

알림

대학주보가 더 많은 매체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대학주보가 다양하고 신속한, 그리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새 학기부터 분지, 온라인, 월간 매거진이라는 세 종류의 매체를 통해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분지 매주 월요일, 학교의 핵심 사업을 분석하고 학내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보도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또한 그래픽뉴스를 비롯해 사진과 표로 '생생한 신문'으로 탈바꿈 합니다.

분지 지면 소개

▶3면 보도 '연재기획'

3면에서는 자율운영제도, 재정다변화사업, 후마니타스 칼리지 등 우리학교의 굵직한 사업을 진단하고 우리학교의 향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5면 보도 '그래픽뉴스'

5면에서는 다양한 소재를 그래픽으로 표현해 쉽고 빠르게, 더욱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8면 인터뷰

스펙과 취업에 매몰돼 타성에 젖은 채 살아가는 대학생. 이와 달리 곳곳이 자신의 길을 걷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학생은?'이라는 질문을 통해 진정한 대학생에 대해 곱씹어 봅니다.



온라인 기존 대학주보 온라인 페이지를 강화해 속보성·단신 기사를 상시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미디어센터는 학내 화제의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뉴스메이커와 학내 모습을 전하는 포토뉴스를 비롯해 전문필자의 고급 칼럼을 전합니다. 또한 대학주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취재기자들이 다니는 학내 구석구석의 생생한 현장을 빠르게 전합니다.



월간 매거진 계간으로 발행되던 대학주보 매거진이 월간 매거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온라인과 분지에 다 담지 못했던 학내사안을 비롯해 문화·학술·스포츠 등 다양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PHOTO NEWS

나도 이제 경희대생!

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달 29일 양 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 서울캠퍼스는 평화의 전당에서 입학식을 갖고 우리학교의 중점사업들과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캠퍼스 각 단과대학별로 입학식을 가졌다. 정환웅(자율전공학 2012) 군은 "입학식을 하니 진짜 대학생이 된 느낌이다"며 "앞으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차범호 기자 jyp@khu.ac.kr

외국인 유학생 강제 휴학제도, 한 학기 유예

유승규 기자 ysg0928@khu.ac.kr

이번 학기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외국인학생 의무휴학 제도가 다음 학기로 유예됐다. 외국인학생의 의무휴학 제도는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이 입학 후 두 학기가 지날 때까지 토픽(TOPIK,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성적을 취득할 때까지 자동으로 휴학 대상자가 되는 제도다. 제도가 유예됨에 따라 아직 토픽 4급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오는 8월까지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제도유예가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시행 시 휴학처리 대상자가 순수외국인전형 입학자 중 절반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적을 미취득한 외국인학생은 서울캠퍼스 131명 중 60명(45.8%), 국제캠퍼스 74명 중 30명(40.5%)이다.
외국인지원센터는 유예기간 동안 휴학 처리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의 '유예 학기'인 2012학년도 1학기 동안 토픽성적 미취득 외국인학생의 경우 최대 이수가능 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국제교육원에 개설된 한국어 교육 과정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서울캠퍼스 외국인지원센터 이진섭 계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번 휴학하면 학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영구 휴학이나 심하면 제적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기 전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학생들은 의견수렴이나 실질적인 지원 없이 무작정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인 유학생 남금홍(아동가족학 2011) 양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어떻게 수강신청을 하고 토픽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면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느정도 지원은 해주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총 외국인유학생회 하운(경영학 2009) 회장은 "입학 후 토픽 성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며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무리하게 입학시키기 보다 토픽 4급의 성적을 입학할 때 제출하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무휴학제에 대한 대학본부와 외국인 학생간의 입장이 달라 향후 유예기간 동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1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양 캠퍼스 1학년 학생
- 모집일정 : 2012년 3월 5일(월) ~ 3월 12일(월)
- 면접일정 : 서울캠퍼스 3월 13일(화) 오후 7시
국제캠퍼스 3월 14일(수) 오후 7시
- 면접장소 : 각 캠퍼스 신문방송국 대학주보사 편집실
- 선발방법 : 면접과 실기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http://media.khu.ac.kr/khunews/
- 특 전 : 장학금, 해외취재 등
- 문 의 : E-mail(khunews@khu.ac.kr)
전화 서울캠퍼스 편집실(02-961-0095)
국제캠퍼스 편집실(031-201-3232)

사령

〈명〉 정기자 김신영(프랑스어학 2011)